

한빛원전 하청직원 방사선 피폭량, 정규직의 9배

송갑석 의원 국감자료...위험시설 출입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
한울원전 7.97배, 고리새울원전 7.67배, 월성원전 4.18배 순

원자력발전소 하청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 직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4개 원전 가운데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 하청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정직원 피폭량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

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0.48mSv(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이는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7mSv보다 약 7

배 더 높은 것이라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한빛원전이었다. 협력업체 직원 1인당 피폭량은 0.48mSv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5mSv에 비해 9.02배 높았다. 한울원전은 7.97배, 고리·새울원전은 7.67배, 월성원전은 4.18배 순이었다.

이 같은 차이의 주요 원인은 핵연료봉과 원자로 등이 위치해 방사선 수치가 높은 관리구역의 핵심 시설에 출입하는 인력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전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피폭량 허용치인 50 mSv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월성원전에서 543일간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연간 피폭량 허용치보다 낮은 42.88 mSv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327일간 근무한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B씨는 25mSv가량 피폭됐지만, 이듬해인 2013년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송갑석 의원은 “원전 노동자들은 항공운송업이나 방사선과 의료진 등 다른 방사선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은 방사선에 노출돼 각별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수원은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원전노동자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폭(被曝)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쏘이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인문학 여행 성지로 가꾼다

문화재 활용사업 53억 확보...고품격 유산 관광 콘텐츠화

전남도가 문화재청의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7개 분야 53억원을 확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부여할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 추진해 전남을 인문학의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분야별로 생생문화재 17선, 향교서원 문화재 8선, 전통산사 문화재 6선, 문화재 여행사업 3선, 세계유산 활용사업 3건, ICT(정보통신기술) 실감콘텐츠 활용사업 1건 등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분야는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총 17건이 선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올해 첫 선정된 나주 ‘기원!말씨앗으로 가치를 꽃피우다’, 광양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담양 ‘역사의 빛, 의향문화재를 만나다’, 강진 ‘조선 500년 병영성, 반영을 삶다’ 등이다.

향교서원 문화재 분야는 향교와 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9년째 선정된 담양 ‘장평향교 은행나무 선비학교’, 구례 ‘해피 구례향교’,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에서 진행되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이 포함됐다.

전통산사 문화재 분야는 고품격 산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구례 화엄사, 나주 불회사, 순천 송광사, 화순 운주사 등 6개 산사에서 추진한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해남 대흥사, 화순 인돌 유적지에서 진행한다.

밤에 즐기는 문화축제인 문화재 야행은 주변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목포, 여수, 순천 등 3개 시·군이 선정됐다.

2022년부터는 디지털 정책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 ‘VR로 체험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광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전남의 문화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고품격 문화유산을 향유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재 활용사업과 연계해 전남을 인문학 여행의 성지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광주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지방분권協, 광주서 자치분권 강화 촉구

광주회의의 정책토론회,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반영 결의문 채택

광주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광주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시의회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지역별 의장단 및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안 통과를 비롯한 20대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강화 핵심 국정과제 천명 및 관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광주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과거 중앙집권의 산업사회 시대에는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이 집중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간 경쟁체제’였지만 지금은 각 지역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간 경쟁체제’라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결기를 바로 돌렸던 우리 광주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가는 일에도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의는 2017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발족했으며, 17개 광역시·도와 86개 기초 시·군·구 등 전국 203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코로나 감소세 뚜렷 80일 만에 한자릿수 기록

광주에서 80일만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 추가돼 누적 5216명을 기록했다. 유증상 검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확진자 관련이다. 의무 검사가 진행 중인 직업소개소 관련 1명, 광산구 건설 현장 관련 3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이 1명이며, 기존 확진자 관련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됐다.

광주는 지난 11일엔 7명이 확진돼 80일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4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는 등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유증상자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시민들의 방역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독감의 계절이 찾아온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15일 개막...유튜브 통해 골든벨 퀴즈쇼·레시피 공개

전남도가 15일부터 3일간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한다.

올해는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유튜브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 채널을 이미 개설했으며 22개 시군 대표음식 조리법(레시피) 등 축제와 관련된 영상을 미리 감상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식과 남도 추수한마당 주제 영상 및 국제화 비전 선포식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남도음식을 주제로 펼쳐지는 퀴즈대결 ‘남도음식 골든벨’은 푸짐한 상품이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남도음식푸드 스타일링’은 요리를 아름답게 완성하는 법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한 ‘남도음식뮤지비디오’와 여수 밤바다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김영록 전남지사·국민엄마 김수미와 함께 배우는 명

인의 요리비법 ‘남도음식 요리교실’은 올 가을을 예뻐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줄 전망이다.

국민 안내양 김정연과 떠나는 ‘랜선여행 1박2일’에선 남도의 자연과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동네가게 함께가게’에선 주변의 착한 가게를 만날 수 있다.

온라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그중 유명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 우리동네 ‘좋드만 마켓(나쇼프)’에서는 남도 특산물과 여수 10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재미와 감동을 담은 온라인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를 통해 전 세계로 영상이 송출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영어자막도 지원한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남도음식의 우수한 맛과 멋을 영상으로 담아 전 세계로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음식’이 대한민국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아

살니다

3천평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5억원 이상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진원박씨 대종회 명예회장 장안박관주 회장을 진원박씨 대종회장으로 기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례위원장 진원박씨 대종회장 박형기

위원 박성기 박승원 박요주 박지영 박형철 박태길 박상문 박세환 박태운 박정래 박달수 박태백 박성태 박형준 박성준

진원박씨 대종회장 안내

2021년 10월 11일

좌전 연락처 010-9282-5210

발인일시 2021년 10월 13일 09시

발인장소 조선대학병원장례식장 2층 1분향실

장지 전남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삼수왕새고개

부고

子 박 병욱 子婦 孫子 박 재균 박 지균 孫女 박 정유

女 박 금희 婿 고형석 外孫子 고성용 고준용

은희 최승호 최유식 外孫女 최서윤

병운 고재영 영균 진균 소연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이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직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